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하여 이루시는 좋은 결과

2024년 6월말. 박재현 정은실M 드림

꼬냐옹~~

고양이 새끼를 사 달라는 빈민촌 '꿈들의 집' 이웃의 요구에 그곳은 빈대도 많고 음식/물도 안 주니 곧 죽을게 가여워 가져 왔습니다. 숙소에서 왔더니 주민이 이름을 묻길래 '냐옹~~' 이라니 막 웃습니다. 꼬레아는 고양이는 머냐고 물어서 '고양이' 했더니 '꼬야이...' 하며 막 웃습니다. 꼬레아 꼬야이는 어떻게 우냐고 묻습니다. '꼬냐옹~~' 배 잡고 다들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만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숙소 주차장 옆 잡초가 우거진 넓은 곳에 작은 고양이 4마리가 삽니다.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재빨리 몰려들어 먹지만 만지려 하면 다들 도망갑니다. 그런데 단 한마리는 음식만 있으면 누가 만지든 건드리든 상관없이 먹음에 집중합니다. 그 냐옹이가 언젠가부터는 숙소 주차장을 들어오더니 이제는 현관의 경비원 옆에서 아예 누워 잠을 잡니다. 그 냐옹이는 제가 사역지 빈민촌에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 사와서 몇 개월 보호하고, 마침 잡초마당에 같은 덩치의 작은 3고양이와 안싸우길래 함께 지내게 둔 겁니다. 그 '냐옹'은 저를 통해 사람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3마리와 다르게 당당하게 지나가는 이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교육도 아이들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의자/책상 정리하는 아이들

출생신고 안된 도우미 학생의 불성실함에 개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죽는 등으로 숙소서 내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직접 수업 전 청소하러 평소보다 일찍 학교를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기쁨을 주게 하실 수 없나요?" 그런데, 평소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업 한시간 전인데 더위 속에서 닫힌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항상 아이들은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린 것일지도 모르죠. 창고 문을 열자 시킨 것도 아닌데 잘 먹지 못해 키도 작은 아이들이 달려들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의자와 책상을 가져가 정리하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의자/책상 수업 전후 정리는 학생들 몫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참고로, 좀 도둑이 많아서 모든 비품은 창고에 보관합니다)



후원결연

미국 선교단체 대표(베네수엘라계)가 몇 년간 찾아와 이런 저런거 보더 하더니 드디어 지난번에는 필수 6대 영양가루가 포함된 쌀을 1년치 주고 갔고 이번에는 20명 후원결연장(월15불)을 주고 갔습니다. 워낙 신중 느리게 집행해서 실제 언제 월 후원결연금이 시작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진 촬영하고 서류/편지 만들고 바쁩니다. 그런데, 20명 후원이어서 출석율이 높은 학생 우선 선정하니 아깝게 빠진 학생 몇은 빠져서 안나오고 있습니다ㅠㅠㅠ...

영양 쌀은 제가 직접 집에서 쌀음료를 만드는데 당일 아침 계피와 생강을 첨가해 죽을 만들어 식힌 후 분쇄해서 흑설탕/물/얼음을 부어 완성합니다. 마음껏 마시고 원하면 집에도 가져가게 합니다.



BEE. 라구? 1단계 수료증 수여

선교사 비자/폐쇄된 은행계좌 회복의 은혜

비자기간 만료된지 7개월... 콜롬비아의 말도 안되는 요구(선교사를 추천/보증하는 '현지교단-한국/미국교회 불가- 6개월 잔고가 매월 4천만원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로 모든 선교사들이 고충 겪는 중입니다. 그 금액을 유지하는 현지교회 교단은 없습니다. 두 번 거절 끝에 선교사 비자(최대기간)를 받았습니다. 6주 지나 도착한 신분증을 어제 받아서, 오늘 찾아간 은행에서 신분증 기간만료로 동결된 계좌의 건축헌금이 포함된 잔액 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세!!! 현지교단의 보증을 받아 비자 2년을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몇 한인 M들은 서로 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해 겨우 1년 비자를 받았습니다만 1년은 금방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을 갖춘 현지교단을 만난 것도 기적이며, 교단은 임원회의로 운영되는데 재정보증을 외국인 저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도 기적입니다. 더욱이 최대기간인 2년을 받았고 계좌의 재정도 몽땅 다 되받았으니 정말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고아원 기쁨의 집 건축의 꿈... 비자 어려움/건축으로 현지교단 동역의 길 열리다...

동기가 분명한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에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참 난감합니다. 이번 비자 발급이 안되는 8개월의 시간도 그러했습니다만... 결국 지나고보니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였습니다. 비자 때문에 참 좋은 현지인 교단과 공식적으로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의 집(고아원)’. 건축비용 상승 등으로 2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을 위한 사용성과 외관성을 볼 때 00교회 후원의 1층 숙소를 포함한 전체를 3층으로 올려 연결하면 정말 보기에 좋고 사용하기에도 멋진 건물이 됩니다. 이미 기초공사는 건축비 인상 전였어서 4층을 옥상으로 사용하도록 깊이 지었으니, 하늘에서 건축의 만나가 떨어져 3층 숙소와 4층 옥상까지 건축하고 태양열 전기판넬을 설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 때부터 지금의 고아원(보육원) 건축을 기술자문으로 돕는 현지인 목사가 있는데 제가 비자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이 대도시에서 있는 교단 임원이기도 하기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꿈들의 집’과 ‘기쁨의 집’을 통해 교단과 동역하는 플랜을 브리핑하며 외국인인 저의 재정보증을 해 준 것입니다. 저는 비자를 위한 조건 ‘6개월 매월 4천만원 유지’라는 현지인 교단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교단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 ‘보육원 기쁨의 집’ 건축을 통해서 비자 문제도 해결되었고, 현지인 교단과의 동역이라는 선교의 최종 결실의 길도 열릴듯 합니다.



26.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8:26,28)

< 기 도 제 목 >

1. 최대기간 2년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고 달렸든 은행의 잔고를 전액 찾게 하심을 감사
2. 길고 깊은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도록
3. 학생들의 후원결연 사역 경험을 배우고 20명 더 결연되어 용기얻도록
4. 비자 추천 현지인 교단과 동역하며 현지인목사/교사 파송지원받도록
5. ‘기쁨의 집’ 2층 잘 완성하고 3층까지 하도록
6. 총기범죄/위생결여/위험한 교통... 속에서 안전/건강하게 사역하도록
7. 후원교회/후원단체의 평안, 후원개인의 건강/재정/자녀... 를 위해서